

금요 수필

별 따는 마을

완 산 칠봉 서쪽에 좁은 길 이 하나 있다. 쉼시 뜰하께 나니는 그 길, 깊숙한 곳에 농가 주택이 하나 있다. 집갈하께 빗어진 이영이 선명하께 보이는 초가집이다. 그 집 정면에서 보면 갈색으로 불규칙하께 구멍이 뚫린 방과 넓은 텃밭이 있었다. 마당에 밭돌이 하얗하께 돛 보이오. 연연 갈색 견조 나뭇이 쌓여있었. 그야말로 전형적인 프랑스 같은 가정집이었던.



정 군 수필가

단회한 이야기를 했다. 그가 가난하 게 살며 혼자 시간을 보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새벽, 살구와 자두를 손수레 에 싣고 용머리고개를 넘었다. 남부 시장 도깨비시장에서 물건을 팔았 다. 나 팔지 못하고 반을 능능 구를 때, 옆 가게에서 물건을 대신 팔아 준 데니 빨리 학교 가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방을 짊어지고 오는 길을 다시 뛰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타이어 슬리퍼를 벗어놓았다. 그것 도 처음에는 손바닥을 몇 차례 맞았 다. 다음부터는 손, 얼굴 아무 곳이 나 때렸다. 반을 뜬지 않고 반향한 다게 맞았다. 집안 사람이 그런 것 을 어찌하겠는가? 나보다 슬관처럼 맞았다. 왜 그렇게 타이어 슬리퍼가

아픈지 맞아본 사람은 안다. 일침 억울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아 한없이 울 때도 있었다. 울고 나면 댜지 속이 후련했다. 울면서도 위망 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나처럼 가끔 늦게 오는 친구도 있었 다. 그도 같이 밧으면서 어찌나 눈 이 마주쳤다. 그때, 왜 그렇게 웃을 이 나눈지 모른다. 그게 웃을 원인 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곁었었 던 시절인가. 어린 운동장에서 돌을 만지며 얻은 것이 부었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다고 선생님을 원망하 고 싶지는 않았네. 당연히 내가 빨 리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 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중도덕과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 나는 것을 그때 배웠다. 선생님은 얼굴을 단지며 내일은 일찍 와 하고

커리를 쓰다듬었다. 예의 미를 태도 와 선비 같은 인자한 웃음을 배웠 다. 그리하여, 인내와 인자미를 기기 서 배울 수가 있었다. 지금도, 가끔 내가 외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그 고습이 생각나. 비록 가난하게 살 았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가난은 조 남 불멸한 썩이다. 삶이 아무리 조 들리고 보대간다 해도 변하지 않았 나.

이제 세월이 흘러 이 모든 것이 아 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나는 이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의 생활은 공평이었으 나 정직은 없었다. 지금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때 물으면 닦아주고 상 처 입으면 따져주는 친구들이 있다. 병들고 모양체가 조금 비뚤어지면 어떤가. 아류답게 산다는 것이 좋으 하다. 그건 내 행동과 마음이다. 항상 새롭게 인생을 배우며 추억을 되새각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 다.

“문단경력 - 수필과 비평 등단, 덕 진문학회장 역임, 직촌 예술문화상 수상, 전북 문인협회 회원, 국제 펜 전북위원회의 회원 “지서 - 시집: 가아름 풀 꽃아눔 고, 수필집: 삶이 묻어있는 포구

사설

독립투사로 의사였던 이태준

최근 '이태준' 독립투사가 조명 받고 있다. 그는 의사이자 독립 투 사였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에 병원을 세워 독립운동가들의 연락 거점이자 군자금 운송 통로 로 활용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그 의 기념 공원과 기념관이 자리하 고 있다. 선생은 1883년 함안군 군 북면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 났다. 1907년 서울에 상경한 그는 서울 역 부근에 있던 '김형제 상회'에 서 집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은 독립운동가 김필순 (1878~1919)이 그의 형과 함께 운 영하던 가게였다. 김필순은 1908년 우리나라 최초 의 근대식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 이자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고 독 립운동 단체인 '신민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태준은 1911년 28세의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 다. 이듬해 이태준은 1914년 김규식 의 제안으로 몽골로 이동하게 된 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군관학교 설립은 성사되지 못하고, 이태준 은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설립 한다. 이때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이 태준은 러시아 내전(1917~1923) 의 파고에 휩쓸리게 된다. 1923년 일본군과 결탁한 러시아 백군 세 력이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점령하 자, 이태준은 백군에 붙잡혔다. 백군은 이태준이 불세비키 세력 과 연대해 독립운동 자금을 운송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그 를 살해했다. 그의 고향 함안에는 이태준 선생 기념사립회와 기념관 이 설립돼 있다.

'뉴라이트 성향' 독립기념관장 해임안 의결

왜곡된 역사관과 업무추진비 부 당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 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됐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최근 이사 12명이 참석한 긴급 이사회를 열 었다. 그리고 과반인 10명의 찬성 으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의 직무가 즉 시 정지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취임한 김 관장은, 항일 독립투쟁 의미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재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 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 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라고 발언을 하여 파란을 일으켰 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관장은 친일을 두둔하는 듯한 발 언도 서슴지 않았다. 잘못된 기술

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발언도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과 기관 사유화 등 14개의 비위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은 국가보훈 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를 거쳐 확정된다. 해임안 의결을 주도한 이사들은 “앞으로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관식을 가진 뉴라이트 인사들 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관장은 해임안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는 실제적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의 해임을 목적으로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 다. 김 관장은 해임 안이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ICE가 사람잡는다"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무부 인근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위자가 'ICE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성조기·트럼프 사진 태우는 이라크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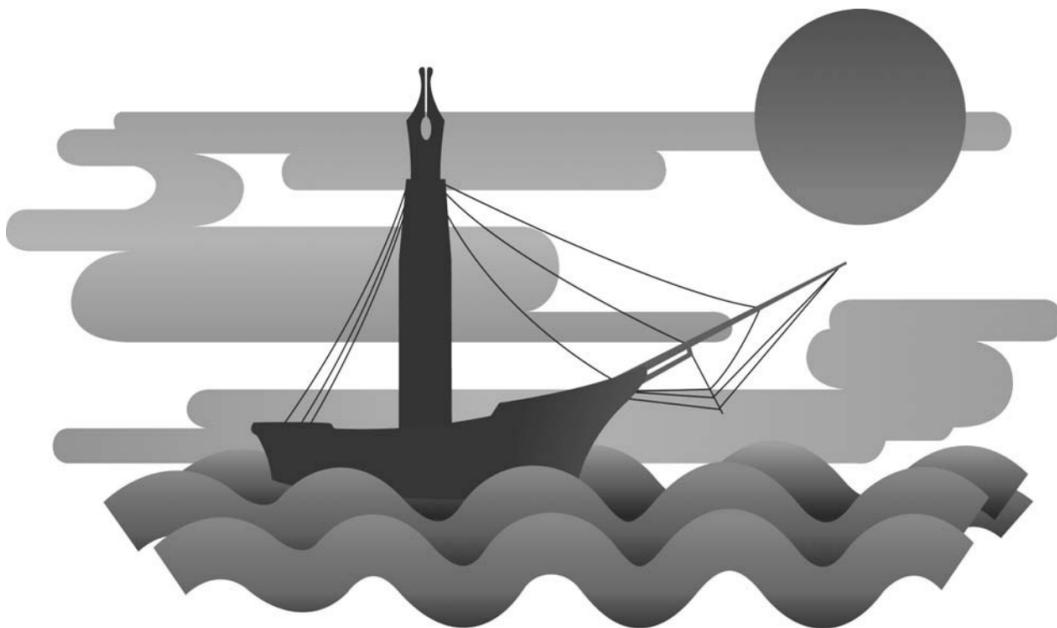


28일(현지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린존으로 이어지는 거리에 모여 성조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